



먹는 메뉴는 거의 고정입니다
두툼하니 식감 좋은 천 원짜리 부산어묵 꼬치 하나에
간장과 꽤 매운 양념 소스를 곁들여 먹습니다

서서 먹다보면
묘하게 이자카야 느낌이 납니다

사케와 맥주 대신 꽃게를 우려낸 진한 어묵 국물 한 잔

초등학생 시절 생각이 납니다

수영 학원이 끝나면

천 원 어치 김밥 한 줄을

된장국, 반찬 리필해가며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

지나갈 때마다 생각나서 들르게 되는 곳입니다

